

월요광장



정유진  
코리안컨설팅 대표

힙(Hip)한 가을 사치

더운 여름이 있었거나 했다. 감쪽같이 나타난 가을 정취가 곳곳에서 흡인 풍긴다. 먼 산이 붉게 물들고 동네 나무 푸르다. 가을이 유독 독서의 계절로 일컬어지게 된 유래는 오래 전부터다. 중국의 당나라 문장가이자 사상가 그리고 정치가였던 한유는 자신의 아들에게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 시를 썼다고 한다. 잘 알려진 바 대로 그가 쓴 시에서 신선한 가을 바람에 등불을 가까이하여 글 읽기에 좋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사자성어 '등화가친(燈火可親)'이 오늘날에까지 전해졌다.

읽는 시간으로 세계 끝까지도 짧은 전적이 있는 우리나라는 2007년 독서문화진흥법을 제정한 뒤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을 '독서의 달'로 선포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판물 판매와 도서관 도서 대출의 통계 수치까지 끌어 올리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텍스트 힙을 단지 오래 가지 못할 허세로만 폄하할 일은 아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과장을 좀 하자면 출산율과 같이 떨어져가던 독서율이 오르고 짧은 쇼트 영상을 보며 핸드폰을 끼고 살던 세대가들이 책을 잡게 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수필의 향기



박용수  
수필가·동신대학교 교사

덮어주는 사람

설린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만 그의 허물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의 잘못이 없지 않지만 내가 조금만 더 참고 따뜻하게 덮어줄 수도 있었다.

덮어준다라는 일은 짓누르지 않는 포근한 무게여야 한다. 마른 대지를 적시는 봄비처럼, 걸인의 손길을 잡아 주는 연민처럼, 새싹이 얼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는 농부처럼, 배고픈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어미처럼, 어린 새가 비에 젖지 않도록 날개를 피우는 어미 새처럼, 지친 대지를 덮어주는 흰 눈처럼, 숨이 막혀싸를, 과육이 씨앗을 감싸고 있는 모양처럼 연민과 희생이 들어있어야 한다.

기고



방동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

선제적 시장 격리로 수확기 쌀값 안정을

정부는 낮은 쌀값과 벼멸구 등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지난 10월 15일에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내용은 쌀 소비추진량 대비 초과생산량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과감한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낮은 쌀값과 벼멸구 피해 등으로 농가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초과생산량보다 훨씬 많은 양(量)을 선제적 시장격리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社說

광주 군공항이전법 대구 수준으로 개정을

광주시와 대구시의 공통 현안 가운데 하나가 도심에 있는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간 군공항이전특별법을 보면 대구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명시돼 있는 반면 광주는 광주시가 지원 비용 등을 감당하는 구조로 차이가 크다.

로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를 명시하고 있지만 광주특별법에는 '국가'가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로만 표기해 둔 점이다. 추진 주체를 대구는 정부 주도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광주는 자치단체로 제한해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두고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싸움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인명피해 막기 위한 맹견사육허가제 유예라니

최근 수년 새 대형견에 의한 물림사고로 어린이와 노인들이 여러 차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관련 법률이 만들어졌다. 개몰입 사고의 처참한 광경에 국민들이 충격에 빠지고, 대형견을 관리하지 못한 견주에 대한 분노와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요구가 컸던 탓이다.

이 같은 대표적인 사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철폐조치이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1년여 동안 온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사실상 정착 단계에 이른 일회용품 사용금지 제도를 없애고 말았다.

無等鼓

'전원일기'는 우리나라 TV 드라마 가운데 최장수 국민 드라마였다. 1980년 10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22년 2개월간 총 1088회 방송된 만큼 인기를 끌었다. 농촌을 소재로 하지만 농촌을 뛰어넘는 사람 이야기로 주목을 받았다.

을 하고 '일용염니' 역을 완벽하게 소화할 만큼 연기력이 출중했다. 극 중 아들 '일용이' 박은수가 김수미보다 나이가 더 많았다는 사실은 두고두고 화자가 되었다.

‘일용염니’

Table with newspaper information includi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and contact detail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circulation and advertising.